

KIA 외국인 투수 '강속구 듀오' 뜬다

도미니카 출신 우완 메디나와 계약
150km 넘는 빠른 공에 싱커 위력적
앤더슨과 함께 내년 원투펀치 기대
소크라테스와도 지난 11월 재계약
외국인 선수 구성 완료...새 시즌 준비

KIA 타이거즈가 새 외국인 투수로 아도니스 메디나(Adonis Medina·우투우타·26)를 영입했다.
KIA는 11일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의 아도니스 메디나와 계약금 3만 6000달러, 연봉 30만 달러, 옵션 30만 달러 등 총액 63만 6000달러에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오른손 투수인 메디나는 신장 185cm, 체중 84kg의 체격을 갖춰 메이저리그에서 3시즌, 마이너리그에서 8시즌 동안 활동했다. 메이저리그에서는 통산 19경기(선발 2경기)에 나와 평균자책점 5.35, 1승 1패 1세이브를 기록했다. 마이너리그에서는 135경기(선발 106경기)에 출전해 3.83의 평균자책점으로 36승 33패 2세이브 2홀드를 기록했다.
올 시즌에는 뉴욕 메츠 유니폼을 입고 14경기에 출장해 평균자책점 6.08, 1승 1세이브의 성적표를 만들었다.

마이너리그(트리플A)에서는 18경기(선발 2경기)에 나서 31이닝을 소화했으며, 1승 1세이브 1홀드 평균자책점 4.65를 기록했다. 150km를 넘는 빠른 공을 가진 메디나는 결정구로 던지는 싱커가 위력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또 슬라이더와 체인지업, 커브 등 다양한 구종을 구사해 승부한다.
KIA는 메디나와 계약을 끝내면서 내년 시즌 외국인 선수 구성을 마무리했다.
KIA는 지난 11월 'KBO 5월 MVP'에 빛나는 소크라테스 브리토와 일찌감치 재계약을 맺었고, 선 놀린을 대신해 우완 장신 강속구 투수인 손 앤더슨을 영입했다.
그리고 최근 토머스 파노니의 보류권을 풀 KIA는 마지막 한 자리를 메디나로 채웠다. 이와 함께 KIA는 내년 시즌 외국인 '원투펀치'를 새로 구성하게 됐다.
KIA는 올 시즌 외국인 투수들의 부상·부진으로 고전했다. 시즌 중반 로니 윌리엄스를 대신해 파노니를 영입한 KIA는 놀린과 파노니 두 좌완 투수로 후반기 마운드를 운영했다.
두 선수가 안정적인 활약으로 마운드를 지켜줬지만, KIA는 원투펀치의 강렬함이 부족했다고 판단하면서 새 외국인 투수 영입 작업에 나섰다.
최고 154km의 직구를 던지는 앤더슨으로 마운드의 스피드와 힘을 더한 KIA는 메디나까지 '우완 강속구 듀오'로 마운드 새판을 짜게 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새 외국인 투수 메디나. <KIA타이거즈 제공>

AI페퍼스 13연패

광주 AI페퍼스가 개막 후 최다 연패 기록을 13으로 늘렸다.
광주 AI페퍼스는 지난 10일 인천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도드람 2022-2023 V리그 여자부 원정 경기에서 흥국생명에게 1-3(14-25, 25-19, 23-25, 13-25)으로 졌다.
1, 2라운드 전패에 이어 3라운드 첫 게임에서도 연패 탈출에 실패했다.
주장 이한비가 올시즌 가장 많은 18점을 뽑아냈으나 연패 탈출을 이끌지는 못했다.
페퍼스는 이한비에 이어 니아리드(11점), 박은서(11점) 등 3명이 모처럼 두자릿수 득점을 하는 등 공격력이 살아났다.
이날 페퍼스는 지난 7일에 이어 3일 만에 다시 흥국생명을 만났으나 설욕에 실패했다.
페퍼스는 경기 시작 후 4연속 득점을 허용한 뒤 무기력하게 1세트를 14-25로 마쳤다.
페퍼스는 2세트 들어 흥국생명 세터 김다솔이 흔들리는 틈을 타 끈끈한 수비와 이한비의 득점(7점)을 묶어 2세트를 25-19로 따냈다.
기세를 올린 페퍼스는 3세트에서 이한비(6점)와 니아리드(5점)를 앞세워 16-10으로 리드했으나 승기를 지키지 못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나성범 7년 만에 되찾은 골든글러브

이정후 5년 연속 황금장갑...최다 연속 수상 타이 기록

KIA 타이거즈의 나성범이 세 번째 골든글러브를 품에 안았다.
나성범은 지난 9일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프로야구 2022 신한은행 SOL KBO리그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외야수 부문 수상자로 단상에 올랐다.
유효표 313표 중 202표를 받은 나성범은 올 시즌 MVP에 빛나는 키움 이정후(304표), 삼성의 특급 외국인 선수 피렐라(202표)와 함께 최고의 외야수가 됐다.
FA를 통해 시즌 KIA 유니폼을 입은 나성범은 144경기 전 경기에 출장해 180안타(3위)를 기록하면서 타율 0.320(5위)을 기록했다. 21개의 홈런(9위)과 함께 97타점(7위)을 찍었고, 출루율(0.402) 장타율(0.508) 부문 5위에 오르는 등 타격 전 부문에서 고른 활약을 했다.
이날 수상으로 나성범은 2014년과 2015년에 이어 세 번째 골든글러브를 차지했다.



지난 9일 열린 2022 신한은행 SOL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나성범이 수상하는 모습. /연합뉴스

나성범은 "7년 만에 받은 상이라 더 의미가 있고 KIA 타이거즈 팬분들의 많은 사랑과 열정적인 응원 덕분에 받을 수 있는 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저의 가치를 인정해준 정이선 구단주님, 최준영 대표님, 장정석 단장님과 시즌 내내 믿고 기뻐 주신 각종국 감독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코칭스태프, 전력 분석팀, 트레이닝 파트 모두 감사드리고 한 시즌 동안 재미있게 야구할 수 있게 도와준 동료들에게 감사하고 모든 선수에게 이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이정후는 프로 2년 차였던 2018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골든글러브를 들어 올리면서 장효조의 외야수 골든글러브 최다 연속 수상 기록(1983~1987년)과 타이틀을 이뤘다.
또 이날 유효표 313표 중 304표(97.1%)를 가져가면서 올해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수상자가 됐다.
올 시즌을 끝으로 그라운드를 떠나는 롯데 이대호는 지명타자 부문에서 292표를 받아, 7번째이자 마지막 '황금장갑'을 차지했다. 이날 수상으로 이대호(39세 3개월 20일)를 넘어 40세 5개월 18일의 최고령 수상 기록을 세웠고, 은퇴 시즌에 골든글러브를 수상한 최초의 선수도 됐다.
SSG의 우승을 이끈 3루수 최정(259표)과

KBO FA 단일 계약 규모 최다인 6년 152억원에 '진정' 두산으로 복귀한 포수 양의지(255표)는 나란히 개인 통산 8번째 골든글러브를 품에 안으면서 한대화, 양준혁의 통산 최다 수상 공동 2위 자리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역대 최다 수상 기록은 이승엽이 기록한 '10년'이다.
양의지는 김동수의 포수 부문 최다 수상 기록 타이도 이뤘다. 양의지는 지난 2021년에는 지명타자 수상자로 호명됐었다.
지난해 유격수 골든글러브를 차지했던 키움 김혜성(286표)은 이번에는 2루수 부문 수상자가 되면서, KBO리그 최초로 유격수와 2루수 부문 골든글러브를 수상한 선수가 됐다.
올 시즌 KT 박병호(279표)는 2019년 이후 3년 만에 1루수 골든글러브를 되찾았고, LG 유격수 오지환(246표)은 첫 수상에 성공했다. 투수 부문 골든글러브는 키움 안우진(179표)에게 돌아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일본 양궁 대표 "광주 양궁 한 수 배우러 왔습니다"

1·2진 80여명 동계 전훈
광주 선수단과 합동 훈련

"올림픽 금메달 비법 배우러 왔습니다."
일본 양궁 국가대표 1, 2진 80여명이 광주국제양궁장과 광주여대 양궁장에서 동계 전지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8일 광주를 찾은 일본 대표팀은 광주시양궁협회와 일본양궁협회의 우호교류협약에 따라 2017년부터 광주를 방문하고 있다. 올해 코로나 19 방역이 완화되자 3년 만에 해외 전지훈련을 재개했다.
1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훈련에는 2020 도쿄올림픽 남자양궁 동메달리스트 후루카와 다카하루를 비롯해, 남자 단체전 동메달을 합작한 무토 히로키, 가와타 유키 등 내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2024 파리올림픽 메달이 기대되는 최정예 선수들이 동행했다.
국가대표 1진·U-21대표팀·U-18대표팀으로 구성된 이들은 광주국제양궁장에서 광주시청, 남구청, 조선대 선수들과 합동훈련을 실시하며, 주니어팀(상비군)은 광주여대 양궁장에서 광주여대, 광주체고 선수들과 훈련을 나눠 진행한다.
10일 광주국제양궁장에서 만난 카와타 도쿠유키 일본대표팀 감독은 "2019년 주니어팀 감독으로 광주를 찾아 기보배, 안산 등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이 포진한 광주선수들과 합동훈련을 했던 좋은 기억들이 있어 코로나19 이후 처음 소집한 1, 2군 첫 합동훈련지로 광주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때 합동훈련은 일본 선수들에게 훌륭한 자극제가 됐고 이후 경기력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강조했다.
일본선수단은 오전에는 광주선수단과 친선경기를, 오후에는 자체 경기로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카와타 감독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과 실전



광주에서 동계전지훈련 중인 일본 양궁대표팀(내셔널팀)이 10일 광주국제양궁장에서 훈련을 마친 후 남구청 선수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양궁협회 제공>

을 방불케하는 친선경기는 우리 선수들의 승부욕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런 효과가 자체 평가전에서 경기력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는 국내외 전지훈련 메카로 일찌감치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양궁월드컵, 아시안컵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최고의 인프라와 기보배, 안산, 이승훈 등 양궁 스타를 활용한 스포츠마케팅이 원동력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양천구 쿠드롱'에 당한 '당구 황제' 쿠드롱

첫 1부 승격한 김욱 대역전승
쿠드롱 사상 첫 1R 탈락 '이번'

프로당구 PBA 5차 투어 첫날 '당구 황제' 프레데리크 쿠드롱(벨기에·엘컴저축은행)이 1라운드에서 탈락하는 이번이 일어났다.
황제를 꺾은 반란의 주인공은 '양천구 쿠드롱'이라는 별명으로 불려온 김욱이다.
김욱은 10일 강원도 정선 하이원리조트에서 열린 2022 하이원리조트 PBA-LPBA 챔피언십

128강 1일 차 경기에서 세트 점수 2-2(1-15, 14-15, 15-5, 15-12)로 맞선 뒤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승리했다.
1세트를 15-1로 가볍게 끝낸 쿠드롱은 2세트에서도 15-14로 승리했다.
김욱은 3세트를 15-5로 잡아낸 뒤, 4세트에서는 8-12로 끌려가다가 10이닝에서 하이라인 7점으로 15-12로 역전해 승부차기로 끌고 갔다.
승부차기에서는 행운의 여신이 김욱에게 미소를 보였다. 강하게 때린 김욱의 첫 번째 목표구가 두 번째 목표구를 밀어주면서 의외지 않은 득점에

성공한 것이다.
이후 쿠드롱의 뱅크샷이 무위에 그치면서 경기 가 그대로 끝났다.
김욱은 불과 1년 전만 해도 철강업에 종사하던 직장인이었다.
실력을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에 PBA에 도전장을 내 찰린지 투어(3부)에 입성했고, 지난 시즌 랭킹 29위를 차지해 32위까지 주어진 PBA 큐스쿨(1부 선발전) 출전 자격을 획득했다.
큐스쿨을 거쳐 꿈에 그리던 1부 승격에 성공한 김욱은 쿠드롱까지 잡아내는 데 성공했다.
데뷔 후 처음으로 1라운드를 통과한 김욱은 12일 열린 64강전에서 필리포스 카시도코스타스(그리스·하나카드)를 상대한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올빼미
2관	올빼미, 원피스 필름 레드
3관	암꾸정, 데시벨
4관	극장판 보로로와 친구들: 바이러스를 없애줘!,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5관	올빼미, 극장판 보로로와 친구들: 바이러스를 없애줘!
6관	암꾸정
9관	프레이 포 더 데블
7관	씨네커를 원피스 필름 레드, 블랙 팬서: 와칸다 포에버, 데시벨, 동감
8관	씨네커를 탄생, 크리스마스 캐럴, 스페이스 키드: 우주에서 살아남기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송년음악회 **蓋世之才**
개세지재, 蓋世之才, 蓋世之才, 蓋世之才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제132회 정기연주회
송년음악회, 蓋世之才(개세지재)
일시 : 2022. 12. 15(목) 19:30
장소 : 빛고을시민문화관
문의 : 062-415-5403

즐거움

문화산책